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소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총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3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충현어린이공원

어느새 동네 꼬마들의 보금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속삭임도 한몫

교회 주변이 한결 따뜻해졌다. 밝아졌다. 충현어린이공원 덕분에다. 원래가 없는 주택가는 늘 적막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교회 양옆으로 공원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주택가의 오후는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소리로 가득하다. 동네 아주머니 아주씨들도 들고와 지나가던 학생들도 뛰어 간다. 요즘엔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오는 동네 주민들도 있다.

때로는 이곳에 나와 노는 아이들이나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눈에 띈다. 아름답다. 충현어린이공원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할나위없이 적절한 공간이다.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가로운 마음으로 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근원인 예수님을 전하는 발길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천안소년교도소 관악대반 연주회 지원

교정전도회는 그동안 지원해 오던 천안 소년교도소 관악대반(지도 김유강 집사)의 연주회를 지원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연주회는 5월 20일(목)에 천안 나사렛신학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 교정전도회에서는 요별중장단을 보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당일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면 된다(문의: 교정전도회).

‘교회학교 교육운영안’ 발간



교육연구소는 ‘99 교회학교 교육운영안’을 발간했다(사진). 운영안에는 교회의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지침, 교회학교의 임무지침, 그리고 각 부서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사업계획서 등이 실려 있다. 그밖에 교회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문서의 양식들도 부록으로 첨가하여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격려사를 통해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영원히 켜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로 천국일꾼이 가득한 교회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였다.

전국목사장로기도회 5월 17~19일 우리 교회에서

제36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이 주간인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힘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금주의 영성훈련 17교구 (5월 18일)

물품을 모읍니다 5월 28일까지 실업인전도회로

청년1부는 청년의 부흥과 해외단기선교, 그리고 농어촌 낙도 선교를 목표로 ‘99 함께하는 청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시장과 일일초청(5월 29일)**, 부흥을 위한 **청년초청 출결임대미 집회(30일)** 등으로 진행되는 금번 행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일시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으는 물품은 **의류, 문구와 도서, 미술품, 가구, 액세서리, 수산물, 전자 제품 및 주방용품, 생활품** 등입니다.

99-2기 전도훈련원 시작

전도위원회는 30여명의 등록생들과 함께 지난 5월 12일(수) 99-2기 전도훈련원 개강예배를 드렸다. 계속되는 전도훈련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준비된 전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총동원전도집회

지난 4월말부터 계속된 각 부서의 전도집회가 5-6월 중에도 계속된다. 대학부는 5월 16일, 유년부와 중등1부, 청년1부와 장년2부는 5월 30일에, 그리고 유치부와 중등2부는 6월 20일에 각각 전도집회를 갖는다. 이렇게 진행되는 전도집회들을 통해서 각 부서가 부흥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체들의 마음 속에 영혼 구원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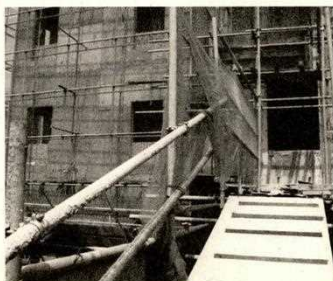
‘케냐’에 가방보내기

제1교육위원회는 고은빈 학생전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 렌레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각 부서의 교사·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헌 책가방을 모아 보내기로 하였다.

가방 대신 비닐에 책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현지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보내는 헌 책가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케냐에서는 헌 물건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종교물품이 보편화되어 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교육국에 문의).

충현복지관 증축 7월초에 완공될 예정

건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충현복지관 증축공사가 이제 두 달여의 공정을 남겨두고 있다(사진). 지난해 12월 5일 기공예배를 통해 시작된 공사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현재 공정은 약 60-70%로 외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이제 내부 칸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보조차량장, 직업훈련 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될 새 공간에서 우리의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뜻을 잘 감당하여 그들 또한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교회주변집중전도 기도에 주시시오

전도위원회와 교구위원회에서 협력하여 5월 27일(목)에 실시하는 교회 주변 집중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전도대상지역인 1-6교구 지역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2. 이 지역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3.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영혼 사랑의 열정과 대담한 믿음을 주옵소서.



김정인 목사

메시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사야 42:10-13)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메시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소산물을 창조하시고 생물에 대해 호의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만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1. 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숨질 때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들과 그 거민들이 ...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아와 거기 있는 생물들과 개산 사람의 거하는 존락들은 ... 섬들의 거민들은 ... 산꼭대기에서 ... 섬들 중에서 ...”(10-12절)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과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 즉 모든 물고기와 해초, 섬들과 거기 사는 거민들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절)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새 노래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던 찬송은 덮어 두고 오늘날 새로 작곡하여 부르라는 말입니까? 새 노래란 죄악의 때가 묻지 않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새 노래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속죄함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은 노래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를 자는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 찬송을 부르는 단계가 어떠합니까

첫째로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아무 생각없이 입만 놀리며 부릅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셋째로 영혼으로 찬송을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찬송을 부릅니다.

넷째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우리나오는 찬송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신자의 제이교회에 김정덕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찬송을 꼭조대로 잘 부르는 분은 아니지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찬송을 배우고 싶어서 레코드판을 사다가 틀어 놓고 따라 배웠지요. 눈을 감고 레코드를 따라 배우는데 갑자기 무당들이 회자를 입고 나타나 나뭇잎을 춤을 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레코드를 꺼 버리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중에 ‘신자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제물이요 악마가 도망가는 승전가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정성도 없이 불신 가수가 취입한 레코드판에서 나오는 음악은 제물이 될 수 없고 마귀가 무시위 도망가는 승전가도 아니고 오히려 악마가 좋아하여 춤을 추는 가락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만한 찬송은 음악성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송은 꼭조도 못하더라도 성령이 있기에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찬송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때를 놓치지 않은 새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서 부르는 찬송은 아무리 곡에 맞게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고 마귀가 도망을 가지도 않고 자신에게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회개한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이 새 노래가 되려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영혼으로 불러야 합니다.

4.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1)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 즐거이 부르라”(11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새 가사로 즐거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방을 얻어 즐거웁니다. 유다 민족이 원수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자유로워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예언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이 될 때에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악마에게 속고 육체에 충동을 받아 죄를 범하여 지옥의 죄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악마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불러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질병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의 찬송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악마를 이겨서 즐거웁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13절)

전에는 내가 원수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는데 이제는 악마가 유혹을 하여도 물리칠 수 있고 꾀박을 하여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승리자의 즐거움으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셋째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여 즐겁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내 것입니다. 돈 천만원이 생겨도 좋다고 하는데, 창금보석으로 꾸민 천국이 내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같이 못난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3)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할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4)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악마의 사슬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피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는 악마의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으니 기쁨이 있고 또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었으니 좋기는 하

지만 나의 결심만으로는 찬송을 사할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나의 마음이 있어야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숨질 때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성곤 목사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2:1-8)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를 이루시는 계획

사람은 의사소통을 위해 말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일 먼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막연해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이 수만 가지로 나뉘어진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으로 모으실 새 길, 새 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하시는 계획은 바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던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 의미심장한 변화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오래 전,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창 1:3).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와 그 안에 거하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창 9: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곳에 모여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말 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아니겠습니까.

온 지면으로 흠오심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수이후에도 노아에게서 나온 땅의 열국 백성들은 나뉘어지서 온 땅에 흠어졌습니다(창 10:32).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창 11:1)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온 땅에 흠오되 온 땅에 있었습니 다. 온 땅에 흠오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함께 거할 놀과 도사를 건설하기 위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것입니다(창 11:2-4). 그들은 또다시 일어난

지도 모를 홍수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온 지면에 흠어버리셨습니다(창 11:9).

듣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언어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할시켜, 단일화하자, 하나되자고 외칩니다. 바벨의 백성들은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힘의 아래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는 목소리와 주장하는 힘이 전달

됩니다. 바벨탑 앞에서 하나였던 사람들이 또다시 오순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났을 때 생긴 일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귀는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순절과 하나님

오순절은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모임 곧 교회를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가 희생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새우리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권능 곧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히 채워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 새 교회는 단처럼 땀 안에 모인 12명의 제자들로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그 후로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자신의 언어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언어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저야 할 하나님의 소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29:10)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길요리 전리요 성령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총이 넘친 성탄절을 믿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공물을 베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희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된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오순절을 믿고 기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인하여 그를 찬양합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심을 뿐 아니라

하나문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이 수만 가지로 나뉘어진 이후

하나님께서서 우리를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으로 모으실

새 길, 새 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하시는

계획은 바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던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죄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나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할 일은 가졌으나 들을 귀는 버렸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6절). 이들은 실제로 어떤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게 했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변했

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일제사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 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물을 지으시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 되자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금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며 우리에게서 귀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5월 1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된 몸으로 보내신 일과

세계 선교

국내외국인선교부는 선교사 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의 터

5월 22-23일 전도체육대회 실시

국내외국인선교부는 오는 5월 22-23일까지 전도체육대회를 실시한다. 이날은 특히 뜻이 만발하고 초록이 절이려는 자연을 가족과 함께, 친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휴일이다.

그러나 외선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했다. 외국인들을 친근히 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과감하게 헌신하는 자라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적응을 하는 첫 훈련 코스이다. 그런데 외선부에 있으면 이 부분이 저절로 훈련된다.

현재 외선부에 외국인 형제자매들은 평균 70명 정도이다. 본 행사는 광주에 있는 신원초등학교에서 집합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체육대회 및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가진 후 오후 5시까지 중현기독교회를 이동을 한다. 저녁식사 후 부흥회 및 국가별 모임을 갖고 기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23일) 주일 아침에 함께 교회에 와서 주일 집회를 갖고 4부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타교구와 연합하여서 전도체육대회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전적으로 외선부 자체행사로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기에 이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봉사하려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행사들을 통하여 상호고 높은 영혼들이 복을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



1박 수련회

선교-기도도 준비하고,
언어-현직인들 속에서 습득하자!

-선교연구원생, '99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 참석-

선교위원회에서는 평신도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훈련 중에 있는 선교연구원생과 '99년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박 수련회를 갖고자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선교, 기도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는 총회 MTP 교수요원인신 장양배 선교사를 초청하여 언어 습득 훈련도 받을 예정이다. 장 선교사가 강의할 언어 습득훈련은 현지인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여 현지인들의 진정한 친구로, 이웃으로, 복음 전도자로 자리잡아 가도록 돕는 훈련이다.

대 상: '99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
선교연구원생, 선교관심자
일 시: 5월 21일(금) 오후 9시 30분(1박 수련회)
장 소: 배다나홀
준비물: 성경, 찬송, 언어습득 훈련을 위한
녹음기와 통역기

이웃 사랑

구역에서 이웃 사랑 실천하기

김 병 태(목사, 봉사위원회, 7교구 지도)

구역예배를 드리고 전도회 모임을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실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간증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는 시간이다. 그 자체에도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움도 모임을 지체하고 우리의 모임으로 끝난다면 "자기들끼리만 도나기 된다"는 불신자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구역예배를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랑을 들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좀 더 도전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한다. '구역에서 이웃 사랑 실천하기'를 통해서 각종 모임이 좀 더 도전적인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방법을 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지만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웃 사랑 실천하기'는 단순한 구제나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변함없는 동기는 '예수님이 내 생애에서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고백적

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때 그들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방법은 주된 청소하기, 무료 공부방을 열어 공부부를 지도해 주기, 주부 대상으로 컴퓨터강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 모시고 비디오 함께 보기, 병원봉사와 전도, 양로원이나, 고아원 점심식사 도와 주기, 소년 소녀 가장 돌보기,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와서 기쁨을 베풀어 주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배달 생일잔치 해주기, 동네 경조사가 있을 때 일손 도와 주기, 입시날이나 입학식, 졸업식 같은 때 따뜻한 커피를 끓여 주기,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 및 차 대접하기, 전월경 같은 공공 장소에서 차 대접하기, 축조전도 등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관심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의면하면 주님께 서 주시는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날 책임중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시는 영혼들을 의면하지 않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구역과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신지체인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중현복지관에는

충현제 100여

명에 이르는

정신지체

장애 등 성

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

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역별

전문가들

의 상담과

진단을 통

해 각각의 능

력에 맞는 직업 훈련

과정에 배치되어 약 3년 동안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성인들로

이들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며, 이를 위

해 복지관에서는 일상생활 훈련(위생·

건강관리·예절 등), 지역 사회 시설 이

용, 대인 관계 훈련, 기능 학습, 직장 적

을 훈련 등 다양한 훈련 및 외부 환경

숙을 실시하며 그들을 서비스도 제공한

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이용해 이들의 직업적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여 이를 통해 알맞은 업체에 이

들을 취업시키게 된다.

정신지체인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

기 위해서는 반복, 숙달을 위한 여러 가

지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취업할

현장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적응 훈련

을 하게 된다. 이때 직무 지도 교사는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돕고

동료와의 관계 형성이나 입주 및 동료

들의 장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업이

이후에서는
대 정신지

체인들은
비장애인

에 비해
직장 적

용 기간
은 부족하

지만 꾸준하
고 성실한

작업 태도와
집단 협조

능력에 힘입어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지

않은 채 일반
인들에

비교하면
취업까지

경쟁하는 것
은 무리다

고 생각하
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들보다 우
리들이

같이 생
각하고

호응하는
하나님의

생기로 창
조된 인간

이다.

이들에게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정된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문 제2조가 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군가 담당하지 않거나,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하겠다. (한정혜)



“우리 교회 학원전도회를 소개합니다”

천만 학생을 예수님의 품으로

김 단 용

(장로, 학원전도회장, 동성중학교 교감)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알게 되어 믿음으로 생활하는 학원전도회 지체들은 유치원 교사로부터 고등학교 교사 및 학원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1989년 8월 9일 학원전도회의 창립예배를 드렸다. 약 6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학교, 학원, 학급 안팎에서 복음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힘써왔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497명에 달한다. 1988년도 우리나라 교육부 연감에 조사된 유치-대학교 학생수가 천만명 정도이고 1년에 입학생과 졸업생을 살펴보면 80만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학원전도회가 해야 할 복음 전도 사업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규모이다.

학원전도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총현교회에 등록된 선생님들과 학부님들은 매일 “천만 학생을 예수님의 품으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학부님들도 학원전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학원전도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학원전도회에서는 각 교구별 교사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7월 28일에는 여름 수련회를 갈릴리움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학교에서 복음사업을 담당하는 간사들과 대학생들, 교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등 각급 학교에서 활동하는 신우회와도 협력하여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려고 한다.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결혼가정 학생이나 청소년 문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교구별 담임전도회에서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명이와 성민이 이야기

신재금

(집사, 15교구, 본초초등학교 교사)

7년 전 일이다. 2학년인 동명이는 항상 맨 맨지 와 친자습을 하고 담임인 나를 기뻐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동명이와 친해일까? 나는 예수사랑관치에 동명이를 초대할 생각이 있다. 동명이네는 종교가 없다. 어머니만 천나매 성당에 몇 번 다녔는데 나가면 천주교로 가겠다고 했다. 동명이는 갈은 아파트에 사는 성민이와 함께 살 예정이었다. 성민이는 이리고 약해서 아이들과 잘 사귀지 못했다. 난 성민이 어머니께 성민이 꼭 보고 싶어 하라 하여 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온 집안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셨다. 한반만 오 보시고라고 하고 초대장을 두 개가져 보냈다. 그런데 예수사랑관치에 두 가정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분당에서부터 왔다. 그 기쁨은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후 동명이는 4학년 때 목동으로, 성민이는 6학년 때 상계동으로 이사를 갔으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다. 그동안 의젓하게 자란 동명이와 성민이는 현재 중등2부에 출석중이다. 먼 곳을 마다 않고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이곳까지 다니는 두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주께서 이 아이들을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난 가끔 동명과 함께 나오는 동명이 어머니께 동명쉬인 목사님로 전화한다. “어린 아이 둘만 보내시고 격정치 안돼요? 가끔은 같이 나오셔야요.”

난 아이들을 맡으면 먼저 교회로 출석부터 확인하고 땅과 후나 청소년기 후에 전도대장을 받게 하여 먼저 그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한다. 그리고 ‘사랑’로 인하여 전도한다. 동명이와 성민이를 전도한 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초창기처럼 더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면에는 노력했지만, 내 안에 있을 동안에만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멀다는 이유로 끝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도 그 아이들도 연결되는 믿음생활을 하리라 믿는다. 분당, 목동, 상계동에서 역삼동까지 멀리 소리를 한하고 다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지역이 멀어서 전도할 수 없다고 말걸이는 것은 우리 생각과 나의 생애으로 주님의 뜻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의 의지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전도대상자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크나큰 교사들이 사랑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음껏 모인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방패 가운데 있는 학교내 신우회 모임이 은혜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학교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기도

-동성중학교에서-

김석영

(집사, 2교구, 동성중학교 교사)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 지대를 뽐내고 아름다운 신록을 자아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어린 생명을 맡겨서 - 개구쟁이, 새침때기, 조용한 아이, 유우머 감각이 있는 아이, 청초 절하는 아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노래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 조용히 하나님의 정조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다양성의 조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 아이들을 한 줄로만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각 아이마다 다양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음을 저희 교사들이 깨닫고 시고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모여 기도하고, 전도의 방법을, 불쌍한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인 학원전도회를 저희 교과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원전도회를 통하여 배부받은 성경과 찬송가로 매년 말씀에 감동하거나 기뻐하여 성경 찬송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저희 학교에 20여명의 학생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다시 찾게 되고 구세주로 모시게 될

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학교에서 클럽활동을 통하여 매주 혹은 격주로 주님이 모아 주시는 40여명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지원하시는 신령들

에게 매주 찬양과 기도, 간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정심시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되도록 저희의 눈을 부어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간구함과 사랑의 열매를 주옵소서. 학교마다 당신 이 태어난 교사들을 세워 주시고 천국백성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위를 지닌 교사가 되자

민순기

(6교구, 신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95년 겨울, 주에서 학원전도회 겨울 수련회에 대한 인가여 있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금식성회가 매년 겨울방학에 있는 데 그 해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못해 염려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학원 전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고, 전도의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른 생각으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다 모이고 난 후 출발할 때 인원수가 너무나 못박아있었다. 20여명 남짓한 숫자를 보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이 어떻게 적을까?”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우리는 ‘1당 10명’을 외치면서 기도원을 향하였다.

그동안 즉 학원전도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 몇몇 선생님들이지만 학원전도를 위해 애쓰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학원전도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학원전도회에서 전도성 성경, 찬송가를 주셔서 전신로 성경, 찬송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적은 숫자만이 참여하는 전도회수에 대하여 매년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원전도회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구역별 편성하여 교구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서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일례회를 학원전도회원 전체 기도회로 가지면서 예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세미나도 열어 성령충만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셋째, 교사들을 위한 전도훈련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요즘과 같이 선생님의 권위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세대에서 교사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바로 설 때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총현교회에 속한 모든 학원전도회 회원들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학교가 회복되어 이 자리위에서는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 하나 나라가 확장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스승 선생님 - 제자 선생님

“나의 사랑 나의 상급”

박 종 울(고동부 교사)

고동부 교사로 봉사한 지도 벌써 10년째가 되었다. 결혼 직후 나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신 전신사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고동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함께 봉사하던 선배 교사님들이나 나의 어설플 강의(?)를 듣고서 고생한 고동부 나의 후배들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간의 고동부 교사생활을 통해 믿음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했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열심을 향한 열심도 주시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교사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람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의 제일은 하나님을 사람을 기운다는 것이다. 지금 함께 봉사하는 박정수 선생은 내가 1994년도에 고동부 3학년 한 반을 담임했던 때에 우리 반 학생이었다. 처음 분반했을 때에 박정수 선생을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반장으로 임명하였다. 고동부 내내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면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밝게 보여 좋았으며, 전도한 학교 친구를 데리고 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좋은 믿음을 이 좋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전도한 친구 사경은 그 해 신실한 고동부 1부예배를 드리게 되어 반이 바뀌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학생이라 생각하고 그 후에는 전례로 심방하면서 대학입시 공부에 힘들어 하던 박정수 선생을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었다. 다음해 박정수 선생은 대명부로 올라가고 대학에도 합격하여 축하해 주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놀란 것은 대학부 2학년이던 박정수 선생이 고동부를 찾아와 교사로 봉사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선생직 학교 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 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찾아 온 박정수 선생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이제 수년간 함께 봉사하고 있는 박정수 선생은 더 이상 그 옛날 제자 가 아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료 교사이다. 박정수 선생 같은 제자가 이 땅에서는 나의 자랑이요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는 나의 큰 상급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박 정 수(고동부 교사)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

96년 3월, 고동부 교사실로 올라가는 나의 마음은 새로웠다. 2년 전만 해도 고동부 학생으로서 올라갔던 교사실에 이제는 교사의 이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조금은 부푼 마음으로 '나도 이런 선생님이란 소리를 들겠네' 하며 교사실로 향했다. 교무처장님이 새로 오신 보조교사라며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너무도 쑥스러웠다. 고동부 졸업한 지 2년밖에 안된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내가 이 훌륭한 신 선생님과 같은 호칭으로 감히 불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계시는 고동부에서.

한없이 쑥스러운 마음으로 교사실에 앉아 있을 때, 먼저 내게 다가와 인사를 해 주신 분이 계시다. 고3때 담임선생님이시던 박종을 선생님이셨다. '이제는 정수가 아니라 박정수 선생님인데, 잘 부탁해' 하시며 인사하셨던 선생님. 동년배가 없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생님들 사이에 나를 다정히 맞아 주신 선생님도 너무도 감사했다. 내가 고3시절, 당시 고동부 예배가 7시, 9시 1, 11부로 나뉘어 있었다. 난 위나 잠꾸러기라 9시 예배도 늦곤 했지만 2학년 때 전도한 친구들이 7시 예배를 드리기 회당해서 친구들을 따라 7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박종을 선생님과 만년 지 2달 정도 되어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연락을 해주셨다. '정수가, 잘 지내나? 7시 예배 드리기 힘들지는 않고?' '시험은 잘 봤어?' '학교 졸업했지? 대학은 어디 불렀지?', '대학생활은 재밌니?', '이이구, 젊든 사람이 하기가 어려서 어떡해? 많이 좋아졌어?' 항상 걱정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함께 기뻐해 주신 선생님. 또 인생의 신념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나의 고3 담임선생님 - 박종을 선생님. 선생님도 내 선생님이기도 두달밖에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나의 선생님이시다.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생님을 찾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절에 선생님께서 제자를 잊지 않고 연락하시고 기도 후원해 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누군가의 말이 기억난다.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요.' 나 역시 현재 고동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선생님께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임을 느낀다.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진지한 배움의 자세와 기도로 진행되는

피택자 교육



교회는 지난 3월 21일 당회와 3월 28일 공동의회를 통해 제1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였다. 이 선택에 따라 피택된 장로후보가 5명, 안수 집사후보가 9명, 권사후보가 80명 등 총 94명이었다. 이는 피택된 본인과 가족들뿐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다. 급변 피택위원회는 당회에서 기대했던 숫자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나, 이예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길 것이다. 온 당회원들의 하나님 기도와 여러 교회 일꾼들의 수고를 통하여 필요한 일꾼을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히 인도하실 것이다.

현재를, 피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진지한 배움의 자세와 기도 가운데 한창

진행 중이다. 4월 4일부터 총 2주에 걸쳐서 실시되는 이 교육 일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 계속되는 강의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필독서 읽고 독후감 제출하기 등 벅찬 일정이다. 성도들은 이들이 모든 교육 일정을 훌륭하게 마치고 주께서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일꾼, 복음의 비전을 받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하겠다. 김성관 위원장께서는 지난 주일 저녁 피택자 전례와 만난 자리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긍정적인 교인'에 대해 함께 주세요'라고 당부하였다.



가정의 달 시즌 3

서로의 차이

조 칠 수목사, 신촌가정부, 13교구 지도

개와 고양이만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개는 반가움을 꼬리를 들어 표현하지만 고양이는 그것을 공격용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꼬리를 내리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반가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개에게는 위협을 느꼈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의 싸움은 표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에도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부부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포기한 결혼생활을 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된거냐?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는 표현 문화가 창조할 때부터 전혀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 차이는 큼니다. 남자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장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대단히 시진과 후자에 예민합니다. 객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여자가 대화를 요구하면 마음을 알아 주기가보다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급급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신을 존중해 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축하, 칭찬에 예민하며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알아 준다고 느낄 때 행복합니다.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작

작이기에 대화를 할 상대를 찾고 이야기를 해서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서 긴장과 원망과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결혼 생활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 수없는 갈등을 많이 불러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다릅니다. 그 자체뿐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대로 두지만 내가 주셨는데 우리는 배우자의 모습을 받아 주지 못하고 고지려고 함으로써 수없는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아내와 남편을 서로 뜯어고치고 다투고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결혼생활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림 / 황원원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영아부
아빠, 잘 나오셨어요!

지난 주일 새전구 초청잔치가 아닌 아기들의 아빠를 초청하는 잔치를 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빠들이 많이 영아부실을 가득 메웠다. 찬양하는 소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고 익숙지 않은 울동은 그대로 감사했다. 아빠 부름에서 새내기인 잠자는 아기의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날 잠꼬대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아(0-3세)라고 말씀해 주시며 아파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또한 초추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이기성 평신도전교사님이 오셔서 기도로 늘 후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인사를 해 주셨다. (해정혜 통신원)

유아부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드렸습니다. 사실 어버이 날, 어버이주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일년 내내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다가 일년에 한 번 선물 사드리고 외식시켜드린 뒤는 결과가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항상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들들도 매일매일 '어버이날'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모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 선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 분반공부시간에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글씨 쓰기가 서툰 1학년 어린이도 얼마, 아빠께 감사드리라는 마음을 글로 혹은 그림으로 정성껏 표현했다. 주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대부분이었으나 속 깊은 친구들은 제법 부모님께 바라는 희망사항과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 놓기도 했다.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십자강한 아빠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드린 것 같은 친구도 있고,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라고 뜨겁게 해 한마디 쓴 친구도 있었던 것이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정의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16주 연속 전원 출석한 5과 8반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5과 8반 친구들이 연속해서 16주째 100% 출석하고 있는 것도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내고 있어서 이례는 서로 빠지지 않고 노력한 덕입니다. 지난 주일에 친구들을 만나 보았더니 친구들은 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아주 좋아하시면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아침에 늦잠 자고 안 간다고 해도 열심히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10주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15주 지나고 16주를 하다 보니 더욱더 욕심이 생겼어서 이제 20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빠지지 않고 노력하는 친구

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담임선생님이신 김운섭 선생님의 기도의 열매와 학부모님들의 열성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우리 5과 8반 정문원, 정경모, 최정우, 신성렬, 홍시인, 이다솔, 이지혜, 홍지혜, 김보경 친구들 정말 힘입고 4개월 동안의 노력에 계속되어서 5개월, 6개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모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교사를 위한 상담 특강

지난 주 분반 공부 교사를 위한 상담 특강이 있었다. 이번 특강은 최치혜 전도사님께서 맡아 주셨는데 오늘날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아울러 학생들을 위한 참된 교사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같이하여 교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교사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여 천국일꾼 양성에 부응할 것이다. (김법진 통신원)

중등2부
학부모 초청예배

어버이주일을 맞아 중등2부에서는 학부모 초청예배를 드렸다.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은 "부모와 자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보여 주는 생생한 그림"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사순기에 직면한 자녀들의 믿음생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와 교사는 기쁜 만남을 나누며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보자는 약속을 하였다. (심순경 통신원)

소망부
중등1부 초청잔치

5월 9일 12시 15분 갈릴리움. 화산한 색색의 한복과 구김살 없는 양복차림의 어르신들이 헤매는 웃음을 띠며 나오셔서 서로의 손을 잡고셨고, 이분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라는 교사들의 손길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었다. 60여분의 여자 교사님들이 에피타를 한복으로 말쑤히 단장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듯 조그마한 실수로도 웃음이 긴장하며 한 번 한 번을 맞이하였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지팡이를 짚으신 분, 허리가 굽으신 분, 아들과 손자 손녀의 부축을 받으셨던 분, 여러 모양으로 오신 나 함박 웃음 띠며 손에 손을 잡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오직 주 하나님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구주삼고" (240장) 주께 찬송과 브니엘찬양단, 70여분의 남녀교사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을 부른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를 부른 60여명의 소망부 찬양대의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었다. 모든 자녀들과 후배들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행함시다"라는 이종대 목사님의 강론을 통해 성령에 목마른 어르신들에게 가을이 매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라 성령찬양을 주셨고 지난날의 자기의 정욕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을 다 털어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이며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지난 1월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기도로 무장한 마성락 부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이 빈틈없는 계획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700여명의 어르신네들에게 드릴 선물을 선택하는 것과 예산상의 문제점과 무엇을 어떻게

9교구
경로잔치와 잃은 양 찾기 행사 가저

지난 주일 경로잔치와 잃은 양 찾기 행사가 있었다. 교구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교회는 나오지 못한 교구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마리아전도의 회원들의 선물을 통해 60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준비된 떡과 음료수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놓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것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두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주님을 기도드린다. (정옥련 통신원)

12교구
어버이주일 잔치

그동안 기도와 섬김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뜻있게 지켜오신 신망의 선배 어르신들을 섬기는 작은 잔치를 열었다. 주일 하루 전 발글라데시에서 입국하여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몸이지만 감사하므로 가족 찬양을 하신 잠사님 가정과 교구부부 찬양단의 찬양. 비록 음악성은 뛰어나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셨을 것이다.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전했다. 교구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모님 공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이규숙 통신원)

14교구
교구영성훈련

지난 주간에는 영성훈련이 있었다. 예배에는 전경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삶'이란 말씀이 있었고 '부부행복 만들기' 특강도 있었다. 각 지역별 전도특별 찬양 발표 후 교구찬양의 시간, 개인기도 등의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참으로 귀한 것은 처음 비스 출발에서부터 돌아오는 때까지의 모든 순서 순서에 특별히 책임자들이 없었지만 매일하는 일상생활처럼 행해지는 것과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혜나 통신원)

드러야 할지 정하지 못하여 벽에 부딪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합심기도로 충전, 충전, 충전전하며 "마음의 경연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었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굳게 믿으며 총동원 초청잔치를 맞았다.

초청 인원을 670명으로 하였을 때 너무나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주위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우리 하나님은 많았어 맞아 주셨으며 이것이 하나님님의 능력으로 힘이라는 실증을 보여 주셨다. 실로 놀라운 670명을 훨씬 넘는 750명이 갈릴리움을 꼭 채워 그 열기는 아예 매하는 팍팍음을 연신 뛰어넘는 어르신네들의 손놀림에서 더욱이 나타났고 또한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크고 알찬지 받는 어르신네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여 들이치는 발걸음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였다.

끝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라며 나이를 초월하고 밤을 꼬박 새우며 선물을 준비하며 봉사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원환 통신원)



